

韓國에서 發生한 地震海溢(Tsunami) 現象

秋 敏 昇 (株)韓國海洋科學技術

地震 海溢(津波, Tsunami)에 대한 防災 對策을 검토할 때, 제일 重要視하여야 할 사항은 來襲時期, Tsunami 規模 및 被害 豫想範圍 등이다. 이 問題를 논할 때 地震 豫知가 어려운 現時點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資料는 歷史的인 史料라 할 수 있다.

有史 이래 地震海溢로 因하여 韓國 沿岸에 어느 정도의 被害가 있었는가를 研究하는 것은, 앞으로 發生할 수 있는 地震海溢 被害의 尺度가 될 수 있기 때문에 大端히 重要하다.

지금까지 發表된 韓國沿岸에서 發生한 地震海溢의 피해는 日本에서 發生한 1741年 8月の 寬保地震(地震規模 M-6.9, 津波規模 m-3), 1940년 8月の 神威岬 外海地震(M-7.0, m-3), 1964年 6月の 新瀉地震(M-7.5, m-2), 1983년 5월의 日本海 中部地震(M-7.7, m-3) 등으로 因해 Tsunami가 發生 傳播되어 被害가 發生한 것으로 전해왔다.

한편, “李朝烈聖實錄”(李朝 肅宗王) 史料에서 1963年 7月 25日에 蔚山에서 地震으로 인한 海溢이 發生한 記錄이 있으며, 1681年 6月 26日에도 江原道 襄陽에서 蔚珍, 平海에 이르는 沿岸에 큰 地震이 發生하여 海溢이 發生하였고 그 余震이 6月 27日까지 계속되었다는 상세한 記錄이 있음이 發見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日本과 같이 地震海溢을 遠地 및 近地 地震海溢로 學術的으로 區分하여 研究할 必要가 있다. 特히 近地 地震海溢의 경우, 東海岸에 位置하는 原子力 發電所(古里, 月城, 蔚珍) 각종 구조물의 危險度 및 安全性 검토와 主要港灣의 防災對策을 위해서는 먼저 地震海溢의 量的인 實態를 把握하고, 그 發生頻度, 傳播過程, 變形狀態, 沿岸 및 港灣에 미치는 影響 등을 研究할 必要가 있으며, 그 震源域을 推定하여 傳播圖 또는 豫想圖를 作成하고, Tsunami 規模의 數值實驗, 水理實驗 등을 實施함으로써, 設計潮位를 決定하고, 海溢 危險度을 推定하여 船舶의 安全運航, 海難事故 및 沿岸 防災, 特히 原子力 發電所 沿岸構造物의 安全度 維持를 爲한 必須資料를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